

높은 기술력 · 최상의 서비스

원가 절감 · 생산성 증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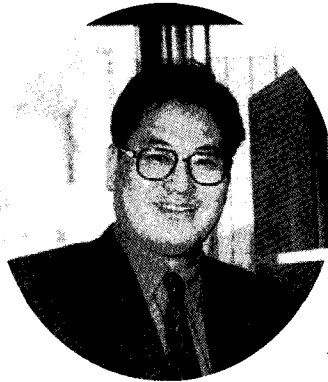
홍의락 / (주)크로네스코리아 대표이사

포 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포장기계의 종류는 수없이 많으나 아직까지는 국내의 기계 설비 기술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 생산되는 기계보다는 외국에서 들여온 기계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국내에 맞는 외국의 선진 기계를 소개, 설치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AGENT가 늘고 있으며, 그중 업체들의 신뢰를 받으며 자리잡은 (주)크로네스코리아가 대표적이다.

(주)크로네스는 1951년 독일 뮌헨 근처 레겐스버그에서 라벨러 제작을 시작으로 현재 식음료 생산 자동화 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런 크로네스가 1992년 한국지사인 크로네스 코리아(주)를 두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크로네스코리아(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홍의락 사장은 “크로네스코리아가 국내 산업적 측면과, 국내의 기계산업에서 원가를 절감시키며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



며 “무조건 외국제품은 나쁘다는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그전에는 기계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살아온 그가 포장기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제

약에 입사한 홍 사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룡무역에 입사한 홍 사장은 근무하던 회사와 거래 중이던 크로네스를 통해 포장기계와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어 크로네스를 국내에 법인 설립한다는 얘길 듣고 지원, 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저는 너무도 평범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한번은 친구들 모임 자리에서 저 자신에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 다.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조차도 알지 못해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때 마침 크로네스를 만나 다시 한번 일

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라며 지금에 오기까지의 힘겨움을 내비쳤다.

현재 크로네스코리아(주)는 독일 기술자 1명, 전자·전기·기계 기술자 3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고객에게 신속한 제품공급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의락 사장은 직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항상 고맙다고 한다. 흔히 외국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A/S를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거나 이에 서비스 조차도 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외국 제품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크로네스는 한국에 크로네스코리아(주)를 두고, 기계 설비제작 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홍 사장은 “94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객 중에 경북능금종합가공사업소란 곳이 있는데 당시 김영삼 전대통령이 설비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오전 9시에 그 회사를 방문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새벽 기계에 이상이 있다며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새벽 3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으로 내려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은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라며 그때의 상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1남 1녀를 둔 홍의락 사장은 틈틈이 바둑과 등산을 하며 회복된 건강을 지켜나가

고 있다. 불혹이 넘은 나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위험을 감소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홍의락 사장은 앞으로의 전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엇이든지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지 말고, 대책이 없어 보여도 ‘이것이다’ 싶으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봅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믿고 최선을 다한 뒤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것이죠”라고 말하는 홍 사장의 모습은 너무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홍 사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체면을 너무도 중요시합니다. 독일의 경우 어떠한 경우든지 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기름때를 묻혀 가며 모든 작업을 맨 손으로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용하게 될 고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들의 정성을 담아 보답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라고 의견을 개진 했다.

현재 크로네스코리아는 국내 식음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기계에 대한 부분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앞으로 높은 기술력과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더욱더 신뢰받을 크로네스코리아(주)를 기대해 보며, 이를 이끌어 나갈 홍의락 사장의 활약도 기대해 본다. ☞

권해진 기자